



회의록		담당	의장
			
회의명	제1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시	2016. 11. 21(월) 15:00	장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
참석위원	신동렬, 현선해, 김윤제, 오하영, 박성수, 조성해, 정종훈, 송인만 평의원 참석 / 이희옥, 김도현, 장연철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1명) ※ 이영관 기획조정처장, 박성현 예산기획팀장, 김영훈 직원 배석		
불참위원	없음		

1. 개 회

- 신동렬 대학평의원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제1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 이어 전차 회의록 낭독은 이미 전체 평의원의 검토 확인 및 서명을 거친 바 시간 관계상 생략기로 하고 이에 전체 평의원이 동의하다.

2. 성균관대학교학칙 중 개정 학칙(안) 심의

- 의장이 본 회의 안건인 학칙 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요청하자 전략기획.홍보팀 김영훈 직원이 불임과 같이 학칙 개정(안) 안건 설명을 진행한다.
- 의장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계약학과의 계약 종료 및 이로 인한 학과 폐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학과 종료 후 필요한 후속조치가 체계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윤제 평의원이 연구센터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종료 후 사용공간의 유지 및 관리 문제가 체계화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다. 이에 이영관 기초처장(이하 처장)이 이공계의 경우 연구센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비로 도입한 연구장비의 유지관리, 이동, 이관 등의 문제가 있어 신속한 공간 조정이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답변하다.
- 의장이 최근 우리대학의 대학원 미충원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모집 홍보가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실험실습비 집행 독려 등을 통해 홍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다. 이에 처장이 올해 대학원장께서 대학원 홍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왔음을 설명하고, 대학원 홍보를 위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실 것을 평의원들께 요청하다.

- 송인만 평의원이 학칙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 배경이 된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학교 차원의 대응 노력이 충분히 있었는지 질의하다. 이에 처장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집체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례집 책자를 발간하여 전체 교원에게 배포하였으며, 홈페이지 킹고포털에도 관련 정보를 상세히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김윤제 평의원이 스마트팩토리학과와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의장이 동학과는 경우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육 내용상 IT분야 교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의장이 학칙 개정(안)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하다.

3. 2016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자문

- 박성현 예산기획팀장(이하 팀장)이 붙임과 같이 2016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안건 설명을 진행하다.
- 의장이 당초 대비 추경예산이 66억원 줄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의하다. 이에 팀장이 등록금 등 수입감소와 인건비등의 지출감소로 인해 재정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학부 정원감소와 대학원 정원 미충원 등이 현실화되면서 학교 재정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부연하다.
- 의장이 재정 수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대학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지역내 일반대학원 학과 설립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나 대학 본부의 지원이 원활치 않다는 민원이 있다고 지적하다. 이에 기초처장이 교육부에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캠퍼스 위치 변경과 관련한 교육부 규제가 존속하고 있어 학과 설립이 쉽지 않지만 최근 교육부 내부에서 관련 규제의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가 완화되면 학과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 의장이 교육부에서 들어오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다. 이에 팀장이 CK사업 40억원, ACE사업 18억원, CORE사업 34억원, 고교정상화기여 대학지원사업 4.8억원 등 총 359억이라고 답변하다.
- 현선해 평의원이 대학 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사례, 경영대 I-MBA 등을 예로 들며 사이버대학 운영 방안을 제안하다.
- 송인만 평의원이 대학 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중요한 바,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트랙 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역설하다. 단일 트랙에서 한국학생들과 학점 경쟁을 벌이는 구조로는 유학생, 한국학생, 교원 삼자 모두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다.
- 의장이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외국인유학생에게는 코스웍 과목보다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전용 과목을 개설해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이에 동의하여 송인만 평의원도 외국인학생에게는 한국어 교육이 꼭 필요하며 더불어

학부과정에서부터 우수한 외국인학생을 전략적으로 리크루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다.

- 조성해 평의원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한국학생들과도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고 하고 버디, 멘토-멘티프로그램 등이 적극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다.
- 정종훈 평의원은 자과캠 학생들의 경우 인사캠과 달리 전공학문의 특성상 팀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때 언어적인 소통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중국인 학생수가 인사캠에 비해 적어서 중국인 학생들과의 접촉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다.
- 조성해 평의원이 우리 대학의 외국인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이 타대학에 비해 너무 낮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언급하다.
- 예산기획팀장이 올해 외국인학생지원팀이 신설되면서 외국인학생 장학금을 차등화하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로부터 절감된 예산을 한국어강좌 증설, TOPIC시험 응시료 지원 등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의장이 여러 평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 개진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대학평의원회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각 대표단위의 건설적인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추가 자문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의장이 2016학년도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의장이 16:3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1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신동렬	(인)	현선해	(인)	이희옥	<위임>
김윤제	(인)	오하영	(인)		
박성수	(인)	김도현	<위임>		
조성해	(인)	정종훈	(인)		
송인만	(인)	장연철	<위임>		